

교회소식

- 2020년 세광교회 표어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증거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성경통독표와 시편/잠언 읽기표, 올해 기도제목 용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섬기는 사람들 명단을 발표합니다.
- 교역자 동정
담임목사는 1월17일부터 18일(금-토) 뉴저지 베다니교회 닷시 청년부 수련회 인도차 다녀옵니다. 금요일예배와 토요일새벽기도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 교육부
- 1월부터 학생들을 위한 **세례 및 입교 학습**을 시작합니다.
- 선교부: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 단기선교 **모임을 2시 소예배실에서** 갖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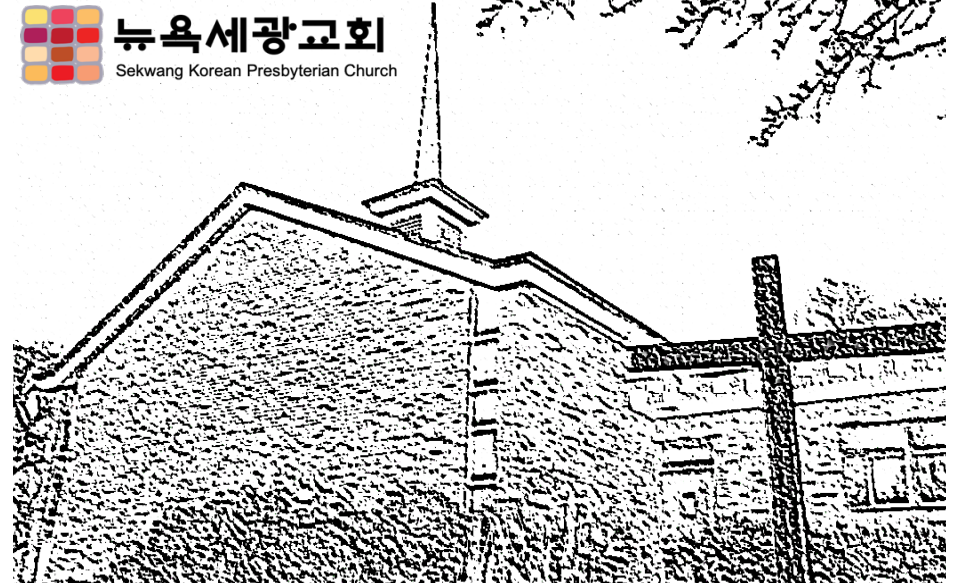
1월 안내: 임은도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신미라 권사 (시 40:1-11)
이번 주 친교: 최경자 집사, 김민아 집사
다음 주 친교: 박창규 집사, 최문자 권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택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중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20권 2호

2020년 1월 12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창세기 성경공부 TBD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10,000 Reasons”-----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Offering Prayer----- Leader
- Word of God----- **Psalm 40:1-2**----- Pastor Kim
- Sermon ----- **“Starting the Year Off On the Right Foot”** ----- Pastor Kim
- Prayer----- Together
- Closing Praise -----“I Need You More”----- Together
-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1장(통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pening Hymn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 ----- 31장(통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 다함께
Hymn Praise Him, Praise Him
- 대표기도----- 시편 29 ----- 송성현 집사
Prayer Psalm 29
- 찬양 ----- “목마른 사슴”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 성경봉독 ----- **사도행전 3:1-10** ----- 인도자
Word of God Acts 3:1-10
- 설교 ----- “미문을 넘어”----- 이민영 목사
Sermon
-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 *찬송 ----- 285장(통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 다함께
Hymn O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2a

2020년 세광교회의 표어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 기도와 간구 가운데, 순종과 동행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골 1:15)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히 1:1-2).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신실과 긍휼, 그의 거룩과 자비를 알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의 깊은 진리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관과 짐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편한 곳, 익숙한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시므로 예배로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이 예수님이십니다. 온 맘으로 예배할 때 거기 계시고, 겸손히 엎드릴 때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과 예배로만 바라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슨 깊은 진리를 통달하거나 신적인 위대함에 대한 특별한 체험으로 충만할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 이기거나 다른 도움을 얻지 못해 하나님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대하 20:12). 그때 마주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에 긍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히 12:3).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많은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믿게 된 것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실제 다시 오셔서 모든 간구를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이 시작되도록 도우신 분도, 점점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바라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싫어하시는 죄에서 떠나 명령대로 행하고, 어그러진 무릎을 펴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갈 길로 앞서 가시는데 우리는 주저앉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순종의 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생에 수없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예배하고, 의지하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고, 원망하지 않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화평하고, 긍휼히 여기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가만 앉아 생각하며 무거운 멍에이지만 멍에를 질 때 그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습니다. 주님이 지시기 때문입니다.

<Memo>